

동영상 바탕화면 플레이어로 아시아 시장 진출

동영상 바탕화면으로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주관한 1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메이힐.tv(Mayhill.tv)는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동영상 바탕화면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자체 제작 동영상 플레이어, 파일 포맷 개발

동영상 바탕화면은 실제로 그 구현 원리를 보면 WMT 8 기반의 미디어 플레이어에 의한 재생이다. 즉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 제작 기술을 토대로 동영상 콘텐츠까지 서비스하는 것이다. 메이힐.tv가 자체 개발한 비비플레이어(ViViplayer)는 자체 포맷 파일의 가공된 동영상을 재생 할 수 있다.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정지 영상 등 여러 형태 문서 보기 지원한다. 메이힐.tv는 비비플레이어와 함께 비비메이커(ViViMaker)를 개발해 자체 포맷인 MBS(Moving Backgroud Screen), MBF(Mayhill Background Flash), DF(Digital Film) 등으로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거의 모든 포맷의 동영상, 플래시 파일, 그림 파일 등을 자체 포맷으로 쉽게 변환해 비비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BS 포맷은 메이힐.tv에서 자체 개발한 바탕화면 동영상 포맷으로 유효기간, DRM, 멀티 타이틀 등의 기능으로 파일 보안 유지 및 광고 배너나 이벤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F 포맷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스타일 이미지를 관리, 편집하기 위한 포맷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디지털 이미지를 출업이나 결혼 등의 테마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배경음악 등의 효과를 넣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000년 4월 우리기술의 그린 프로젝트로 출범한 메이힐.tv는 초창기에는 자연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체 제작해 보유한 동영상은 60 분 테이프 기준으로 2000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메



메이힐.tv의
이미지

이힐.tv 사이트를 오픈하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회원수는 15만 명 정도. 비비플레이어는 무료로 제공되며, 동영상 콘텐츠는 메이힐(www.mayhill.co.kr)에서 회원가입 후 다운받을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PC 시장 진출 노려

메이힐.tv의 비비플레이어와 동영상 콘텐츠는 PC 번들로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인텔의 노스우드 프로젝트 파트너로써 인텔 펜티엄 4의 최적화 기술로 선정됐다. 작년 추계 컴텍스에 참가해 컨택됐던 중국의 PC 제조업체 레전드(Legned)와 번들 및 OEM 등 소프트웨어 협력 개발에 대한 계약을 진행중이고 비비플레이어를 레전드 PC 100만대에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SINA(www.sina.com)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계약이 체결된 상태. 그밖에 일본의 NEC, 후지쯔 등과 수출 협약이 진행중이다. 메이힐.tv의 전대영 부장은 "실제 번들로 제품을 제공할 경우 수요가 많지 않으면 수익이 크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할수록 배너 광고나 유료 콘텐츠 사용이 증가해 부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올 한해는 그동안 열심히 개발한 제품들을 시장에 소개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메이힐.tv는 이달 중순에 비비서비스를 국내에 오픈해 비비플레이어의 업데이트와 콘텐츠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바탕화면에 배너나 이벤트 광고를 넣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영상 바탕화면이라는 특성상 플레이어의 성능만큼이나 콘텐츠 자체에 대한 다각화 노력이 필수적이고,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절실하다는 게 정원민 개발팀장의 설명. 또한 사용자가 직접 맞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비플레이어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따라서 자연 동영상 외에도 영화예고편, CF,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영상을 공급하고 SBS 드라마의 경우 DRM 기능을 넣어 공급하는 등 사업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위운희/マイクロソフト웨어 기자 (iwish@sbmedia.co.kr)